



들꽃편지 658

2023.12.7.대설
<https://cyw.pe.kr>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며,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교만한 일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를 관통하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수조원의 자산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를 갖지 못했으면 천하에 가난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무당이나 따라다니면, 천하의 개 잡놈에 불과합니다.



교만이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선(善)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어야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다고 뽐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없는 것도 지어내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스스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고 남을 우습게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만하여 모가지가 뿔뿔해져서 목디스크 걸리고, 남 이기기를 좋아하고, 남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6:18-19)

♥너무 피곤하여 방바닥에 납작 엎으려 있다가 일어난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마음 깊이
눈을 두고

전각 예장 이준우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반드시 의로우시다.
내 몸에 닥치는 온갖 고약한 일들도 그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들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없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눈으로
내게 닥치는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이것은 환영하고 저것은 거절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니
얼마나 한심한 우리 모습인가?

예방 주사 맞지 않겠다고 울어대는
아이들만 철부지가 아니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사람이 속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49 무심코 올린 나의 댓글을 보고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하면서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를 보면서 종종 댓글을 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걸 뉴스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정부야.

차라리 사표 내라. 아이구 답답해 죽겠네.....”

며칠 전 내가 쓴 댓글 모음을 보고 깜짝 놀라 모두 삭제 하고는 다시는 댓글을 달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설령 누가 뉴스의 그 수많은 댓글을 보겠습니까마는 오래전 본인 기사의 댓글을 본 연예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쓴 내 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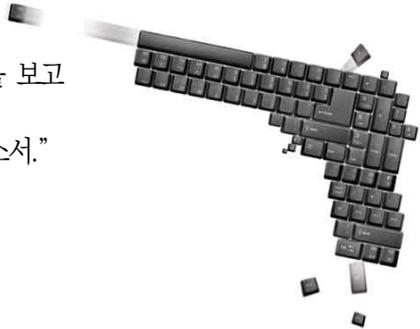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 주님! 여짓 무심코 올린 나의 댓글을 보고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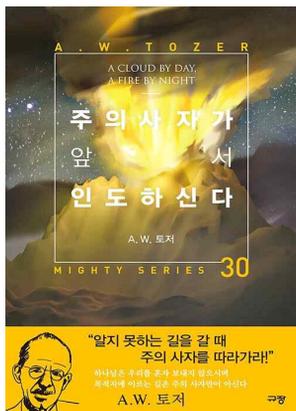
용서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주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신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30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16쪽 12,000원 규장 2021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인도하신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땅은 우리가 현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이다.

1.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이 보내고자 하시는 곳으로 몰아가신다. 교회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면 그 말씀에 자극받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게 된다. 각 사람의 앞을 가로막는 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이 없으면 우리의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을 것이고, 강 저편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2.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라

종종 우리는 이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종류의 음성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출애굽기23장 20-23절 말씀에서 그분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라고 약속하신다. 그분의 사자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은 또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20절)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사자는 그 길을 아신다. 출애굽기23:20절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잠잠히 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방법들에 이끌리며, 인간적인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가려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사람들의 음성은 이쪽저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다. 그분에게 복종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 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곳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3. 최종 목적지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여정은 우리의 회심에서 시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향해 장애물을 뚫고 전진한다. 먼저 보냄 받은 사자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외롭지 않다.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는 단계들, 즉 충돌과 전쟁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것이며, 한 단계는 그다음 단계로 이끌어준다. 우리 앞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교회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과 사역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께서 요한복음14장 2절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다.

4. 성령의 인도를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는 이 사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선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며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 성령께 복종해야 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며, 날마다 결단을 통해 그분을 신뢰하는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출애굽기23:21절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말씀한다. 이 사자가 원수를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반역, 불신앙 및 불순종을 눈감아주는 권세는 없다. 이 사자는 그 어떤 것도 눈감아주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만, 죄를 회개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죄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큰 장애물이었고, 현재 각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역사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가슴 벅차게 느끼게 되는 순간을 학습고대하신다. 그분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비를 베푸신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5. 신앙과 불신앙은 어떻게 다른가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법들, 즉 그분 나라의 법들이 작동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대신 사람들이 정한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진보를 저해하고,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게 한다. 불신앙은 또한 주님의 인도를 방해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고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깨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보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 그리고 지금이 아닌 다른 어떤 때를 위한 약속들이라는 전제 아래 믿는다. 불행하게도 이런 불신앙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신앙은 “다른 어떤 때에 적용되는 진리라면 왜 지금은 안 되겠는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믿음은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이 사자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그분의 계획을 이해라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정하신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서게 된다.

6. 약속의 성취는 순종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그분이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들에게서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돌아와 내 음성에 순종하면 내가 네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꼭 잠겨야 한다. 나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성에 기반을 둔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하면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내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질수록 나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영적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7. 원수를 분별하고 맞서 싸우자

종종 신앙인들은 자기 힘으로 원수가 두려워하게 하려고 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원수는 겁먹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 대신 싸우겠다. 네 원수를 내 원수로 삼을 것이니 그는 나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광의 할렐루야를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올바른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올바른 편에 서면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다. 그분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순간 우리의 대적은 도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그분께 맡겨드리겠다고 맹세하라. 원수를 물리치는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자.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이다.

8.그 땅의 소산은 들어가야만 누린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악한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땅을 주실 수 없다. 애굽을 우리의 땅으로 여기고 계속 거기서 방황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 어떤 곳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 유업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유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 유업을 받을 때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와 주권과 권위에 의해 받게 된다.

9.우리의 영적 유산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취할 의지가 있는 만큼 취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라고 부른다.(수1:1-9).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을 의지하라. 나의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분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삼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의 지혜를 포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

면 그분은 상황을 뛰어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이다.

10.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요10:4) 하나님은 양 떼를 이끌고 앞서가는 목자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는 우리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목적지는 그분이 정하고 세우시며, 그곳에 이르는 길도 그러하다. 그분은 그분의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반드시 우리가 정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계획을 빨리 포기할수록 그만큼 빨리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내 길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11.원수를 알고 그의 것을 취하라

○분 내는 성질: '화'를 못 참고 분을 내는 성질이다. 짜증은 기질적인 죄이다. 성질내는 것은 죄의 손에 쥐어진 칼이다. ○열등감: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열등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야망: 육신적 야망이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그의 육신적 야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큰일을 이루셨다. ○소심함:나의 연약함은 내 원수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방향을 바꿔 나를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반역으로 변할 수 있다. ○사람들: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사탄: 때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도록 길을 닦아드리는데, 사탄은 자기가 실제로는 그분의 일이 더 잘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드실 것이다.

12.원수의 신들과 싸우고 대적하라

가나안이 풍요의 땅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땅인 것도 사실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인간의 지혜나 결정에 맡겨두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출23:24)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원수들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과 대조되고 심지어 그들에게 적대적일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받은 진군 명령은 “가서 순응하라!”가 아니라 “가서 대적하라!”였다. 기억하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혁명가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사도들은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순교했다.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에 저항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우리에게서는 싸워야 할 다른 신들과 다른 제단이 있다. 세상의 쾌락, 육신, 대중적 종교, 타협, 안락, 겁박, 황금만능주의, 문화.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출23:25)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하셨다.

13.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신뢰하고 섬겨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으로 이끌어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곳은 그들이 선택한 곳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신 곳이었다. 그분은 그들의 목적지를 정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셨다. 그 길이 준비된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신뢰하고 따를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이 더 깊어지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내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에게만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종, 신뢰, 사랑, 경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섬김’이라는 우리의 행위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14. 하나님은 이끄시고 채우신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 편할 대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대한 반역의 첫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이유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분을 믿는 내 신앙이 커질수록 내 삶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욱더 성장해간다.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때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나를 보내실 때 그분은 내가 아무 준비 없이 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게 맡기실 일을 위해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나는 믿음에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일을 받게 된다. 때로 우리가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들의 ‘해결자’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리: 이재익 목사 (일본 니이가타교회)

어쩜 그렇게

코끼리는 어쩜 그렇게
코끼리처럼 생겼을까.
악어는 진짜
악어같이 생겼다.
호랑이는 누가 봐도
호랑이같이 생겼다.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랑 똑같다.
사슴은 사슴같이 생겼고
개구리는 개구리 같다.
동물들은 어찌면 그렇게
꼭 자기 이름처럼 생겼을까.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시작노트/ 길가에 지나가는 고양이 두 마리
분명 어미와 새끼인데 등짝의 무늬가 똑같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물들은 자기 종들끼리는 어쩜 그리 똑같은까..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시로 한번 써 봤다.



일상 가운데 입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일상 가운데 입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400원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268. 율법을 알리는 일과 천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그분을 따르는 천사들이 전달한다. 그들은 주님 곁에서 육신의 귀가 아닌 영적인 귀로, 완전히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들은 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감각적·가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행한다. 이 율법은 시대에 어울리게 차례차례 주어졌다. 율법은 이 세상의 행복을 보장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의식으로 축하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몇 안 되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른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온갖 만물은 행복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창조자인 그분을 필요로 한다.

269. 좋은 천사와 악한 마귀의 차이

어떤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숭배하라 알리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천사들은 자신을 숭배하라 알리기 위해 기적을 일으킨다. 전자는 천사를 받드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후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막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 천사를 믿어야 할까?

270. 구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증표의 꺾꽂’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 주었다. 그 율법은 언약 꺾꽂이라고 불리는 ‘법궤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출25:10-16). 하나님이 꺾꽂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 증표가 거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석판에 새겨준 ‘율법 돌판’은 똑같이 언약의 천막이라고 불리는 성막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옮겨온 상자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넓은 벌판을 돌아다니는 동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처럼 비추는 조짐이 나타났다.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천막을 거둬서 구름이 멈추는 곳에 설치했다.(출13:21-40:34) (계속)

모퉁이돌



1. 세상은 묻는다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다 썩었네, 썩었어. 어디 한 군데 정상적인 곳이 없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까지 세상은 온통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썩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썩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기독교는 썩으면 안 되는데, 세상 따라 썩어버렸으니 기독교가 ‘비정상’입니다.

썩어버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썩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데, 정말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20세기 어느 유명한 랍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가 세상에 왔으면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달라졌어야 하는데, 예수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아는 태어나고 사람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빈익빈부익부 문제, 전쟁과 질병 문제...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의 질문이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며 정당한 질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사람들에게 경제문제, 고통과 질병, 인생 문제

들을 해결해 주어야 맞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를 주면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잘 먹고 잘살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걸면서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7633)

2. 아들로 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크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관리를 맡긴 채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포도 수확 철에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은 두 번째로 온 종들도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소작료를 주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은 비유이지만 오늘날 현실을 정확히 묘사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지구를 망가뜨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주인으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은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차지가 된다는 계산을 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선지자들'이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피를 흘리는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입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대부분 '포도원 농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논리가 '농부들'과 똑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일에는 말씀 정도는 가볍게 무시합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일반인들의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장 악랄한 친일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반공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모두 목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지금도 농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7634)

3. 모퉁이들

포도원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마21:42)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어 이방인들을 위한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엡2:20)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불가사의입니다. 십자가형(刑)은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반역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무장봉기를 획책하지도 않았고,

반(反)로마 혁명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밤에 잡혀서 새벽에 재판이 열렸고 아침에 형장으로 끌려가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다면 다시 재판이 열려서 죄목을 따졌을 때 로마법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인 골고다 언덕에는 여자들 몇몇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7차례나 부활을 예고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모퉁이돌이 되신 것입니다. (7635)

4.잇을 때 잘 지키

포도원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마21:43)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 선민,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민족이었지만 그 특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다른 민족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세상을 향하여 가장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은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복음을 믿어라."(막1:15)고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 사이에 치열한 영역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써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데, 정말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나?" 이 질문이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메시아라면 사람들에게 먹는 경제문제, 고통과 질병,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수있는 방법을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맘몬신을 앞세우며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잘 먹고 잘살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우리를 착취할 때, 예수님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무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무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세상 경제주의자들의 퐁구멍이나 훑고 있

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7636)

5. 돌에 맞은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에 맞은 자는 가루가 됩니다.(마21:44) 가진 것이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배척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깨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비대해져서 중세를 피로 물들었던 종교도 하나님이 깨버렸습니다. 또 5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 힘이 강해져 돌에 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것을 보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다란 회당을 짓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힘을 과시하고, 권력자들과 친분을 자랑하고, 교회 이름이 새겨진 띠를 두르고 '봉사'를 하며 온갖 생색은 다 냅니다. 그것을 증거라고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위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산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①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창조와 예수 사건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외의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②우리는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③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질적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장소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입니다.(7637)

6.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 합니다.(마21:45-46) 그러나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종교적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틀을 깬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만 어느새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잊혀진 과거의 역사로만 남아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훼손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기도하

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뇌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체론적 형이상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또는 성리학의 '이기론' 같은 '형이상학'의 미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미 물질을 이루는 최소단위인 원자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그 안이 텅 비어있더라.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메시아는 없는 실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형이상학'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자꾸 이 세상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7638) 끝

행복한 거지

어느 날 어저스틴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서 행복한 표정으로 히죽히죽 웃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복한 저 거지처럼 살고 싶으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불행한 철학자로 살고 싶으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해있는 시간만큼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살던 경택이 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기분이 최고로 좋아져서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굴러가는 소리에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어랑 어허야”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술을 마시면 뇌에 들어간 알코올이 쾌락중추라는 뇌 보상회로를 자극시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도파민은 재미를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느끼는 재미와 즐거움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알콜로 의식을 마비시켜 잠시 현실을 잊어버리는 현실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지의 행복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주관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선한 상태란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마땅히 기대하는 바를 따라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선의 근거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서 찾는 종교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모르면 '선한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거지' 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7639) ©최용우



좋은이의 고양이 (사진:최용우)

플라뇌즈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주일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딸들과 함께 엄마가 여행에 입고 갈 옷을 골라야 한다며 옷가게에 가서 옷을 샀다. 패션과는 거리가 멀어서 눈을 왕눈이 스티커처럼 붙이고 다니는 나와 달리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옷을 보는 눈이 있다. 그래도 나를 짐꾼으로라도 붙여 주어서 충성스럽게 짐을 들고 따라다녔다.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어제 사전답사를 했던 프랑수아 갤러리 카페에 갔다. 플라뇌즈(flaneuse)작가 '김희진, 조혜진' 초대전으로 평화롭고 따뜻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그림도 여러 점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프랑스어 flaneur는 '하릴없이 걷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게으름뱅이, 놈팡이... 한국말로로는 '한량'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다. 좋은이가 방명나무에 한량 고양이를 그림으로 그렸다.

기후변화와 대추

“오메... 이것이 지금 대추여 모과여?”

동네 골목길 소나무집 장독대 옆에 심은 대추나무가 담 너머로 가지를 뻗어 ‘꽃’이 피어서 봄에 ‘대추꽃’을 찍었었다. 그리고 골목길 지나다니면서 대추가 조그맣게 맺힌 사진도 찍었었다.



그리고 오늘은 대추 사진을 찍었는데, 그동안 내가 보아온 상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마치 모과같이 크고 울퉁불퉁(?) 이상해서 아내에게 이런 대추 봤냐고 물었더니 “나도 이런 대추는 처음 보는데? 품종계량을 한 신품종 아닐까?”

집에 와 검색해 보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추나무에 비정상적인 열매가 달린 것이라 한다. 아이쿠야~ 그렇구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제는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긴박한 시대가 되었구나.

인간들은 지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개천절과 팔죽

오늘은 하늘이 활짝 열린 개천(開天)절이다. 나는 계시록을 읽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혹시 개천(開天)절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늘이 활짝 열려야 예수님이 그 열린 하늘로 내려오실 수 있으니... 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단 된다. 오늘 개천절은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만든 날이고, 진짜 개천절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아내: “개천절이니 팔죽 먹어요.”

개천절과 팔죽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아내가 팔죽이 먹고싶은갑다.’ 생각하고 “그러지 뭐. 개천절에는 역시 팔죽을 먹어 줘야지.”

대전 ‘진월당’은 진짜 전라도식 팔죽을 제대로 만든다. 입구에 쌓아놓은 팔 자루를 보니 ‘장성’에서 발송한 택배이다. 진짜 전라도 팔죽이 확실하네.

유럽(Europe)

아내가 유럽(Europe)으로 날아갔다. 새벽에 일행들의 집결지로 태워다 줬다. 인천공항으로 가서 독일 거쳐 저녁에 핀란드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다)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

Lufthansa		Lufthansa	
AFI LEE, INSUK MS Passenger name LH719 05OCT23 Flight Date ICN → MUC Origin Destination		LEE, INSUK MS Passenger name LH2466 05OCT23 Flight Date MUC → HEL Origin Destination	
LH-ECOBASE Class Status Sec. no. 107 Seat 25K		LH-ECOBASE Class Status Sec. no. 17 Seat 15D	
..... 11:10 11:25 Gate Boarding Gate closes Terminal 1		K 19:40 19:55 Gate Boarding Gate closes Terminal 2	

핀란드 현지 일정은 5일이고 왔다갔다 하는데 3일이 걸리는 곳이니 ‘먼나라 이웃 나라’이다. 핀란드 하면 ‘휘바 휘바’ 프라보노 껌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벼락치기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보다 오랜 세월 착실하게 꾸준히 선진국이 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성숙한 진짜 선진국이라 배울 게 많다고 한다.

유럽(Europe)이라는 지명이 ‘넓은 것을 본다’라는 뜻이었는데 정말로 유럽에서 넓은 것을 보고 시각도 넓어지고 사고(思考)도 깊어진다면 좋겠다. 아내가 곰국은 아니지만 무슨 국을 많이 끓여서 날짜별로 메모까지 붙여 냉장고에 쌓아두고 갔다. 내가 잘 찾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걸곡에는 돌탑

집에서 가깝고 버스가 수시로 있어 자주 가는 수통골 도덕봉 정상 근처 등산로 옆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대전 시내를 내려다보는 무덤이 멀쩡했다. 내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분, 심심하지는 않겠구려>라는 시도 썼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봉분이 평평해지고 풀이 사라져 반들반들 해졌다. 또 얼마 후 누군가 봉분이 있던 자리에 돌을 둥그렇게 쌓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았었다. 그 모습이 이뻐서 사진을 찍어 컴퓨터 바탕화면을 만들기도 했었다.

어제 산을 오르며 보니 돌무덤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돌탑을 쌓는 줄 알고 오고가며 돌을 하나씩 던져 커다란 돌무더기가 생겼다. 사람들은 저 자리에 봉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아마도 산에 있는 돌탑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둘 생기는 게 아닐까?

레트로 사진관

오늘은 아우 목사 교회인 빗고을꿈사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아침 10:30분에 KTX를 타고 광주에 내려갔다. 예배를 드리고 광주 양림동 지역을 돌아보았다.



요즘 전국적으로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핫플레이스(hot place)라 하여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광주에선 '양림동'이 핫플레이스라고 한다.

레트로(Retro style)는 회상, 회고, 추억이라는 뜻의 'Retrospect'의 준말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체제, 전통 등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복고풍'

사람들은 사회가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때 과거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한다. 현실적인 힘들과 어려움을 옛 추억을 떠올리거나 경험하면서 잠시나마 견디거나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복고주의 카페나, 거리 풍경을 과거와 현대를 접목시켜 새롭게 만든 공간들이 각 도시마다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현재를 팔기 위해 과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책빵

아침 일찍 광주 시내 길거리를 걷는데 <책빵>이라는 간판이 눈에 보였다. 아직 가게 문을 열지 않아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책과 빵을 파는 가게가 아닐까? 창문에 <우리 밀로 만들어 속이 편한 우리밀 빵집>이라 써여 있고 그 아래 <책:마음의 양식 빵:몸의 양식>이라 써여 있었다.



만약 내가 장사를 한다면 '서점'과 '빵집'을 합친 가게를 하고 싶어서 '책빵'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두고 있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을 줄이야..

나중에 다시 광주에 오면 꼭 '책빵'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내가 장사를 한다면 '서점'과 '카페'를 합친 가게를 하고 싶어서 생각해 둔 이름도 있다. '스타북스'(star books)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상표권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 책과 별레는 완전히 다른데...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면 이길 방법은 없지.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625회 무등산 서석대-인왕봉 전망대 2023.10.9

광주 무등산 서석대-인왕봉 전망대 올랐다. 최용남 최지훈과 함께 아침7:30분 화순행 버스를 타고 화순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로 수만리탐방지원센터까지 가서 등산을 시작했다. 너와나목장-장불재-입석대-서석대-인왕봉 왕복

무등산 정상에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군부대가 있어 출입금지구역이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부대 개방의 날에 들어가서 인왕봉과 지왕봉 인 증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천왕봉'의 모습은 공개가 안 된다.



이번에 인왕봉 아래까지 개방했다기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부대 쪽으로 가림막을 쳐 놓아 천지인은 만날 수 없었고, 정상에는 광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데크만 있었다. 임시 '인왕봉' 표지석이라도 세워주면 거기서 인증을 할 수 있을텐데 조금 아쉬웠다. (최용우, 최용남, 최지훈)

▲제626회 비학산290 (일출봉252m) 2023.10.18수

▲제627회 가야산 덕숭산 백월산 2023.10.27금

오랜만에 양지등산팀 최용우 이상호 정주일 최영만 전화자 신예숙 6명이 뭉쳐서 가야산. 덕숭산. 백월산 3산을 했다. 이상호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 시기에 단풍이 가장 멋진 산을 선택한 것이다.

▲서산 가야산(678m) -원효봉중계소까지 차로 올라가 가야봉-석문봉 사이 3km 왕복했다. 가야 산이라고 해서 갔으니 산이다. 산에서 내려와 근처에 '수덕사'가 있어서 수덕사 하면 산채정식을 먹어 줘야 한다기에 식당가에서 산채정식을 먹고 주고 이왕 왔으니 '덕숭산' 오르기로 했다.

▲예산 덕숭산(495m) -올라가는 길이 흙길이라서 걷기가 편했다. 크게 높지 않은 산이라 산을 오르면서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 정치' 걱정을 땅이 꺼져라 하면서 올랐다.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 뚜껑이 열린다.



▲홍성 백월산(394m) -이상호 목사님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며 백월산으로 차를 몰고 올라갔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100m 최단거리 정상 인증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일몰 풍경을 보았다. 백월산 일몰의 장엄한 풍경이 정말 멋있었다. 멀리 서해 바다가 울망줄망 산 능선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참 신기했다. 산보다 바다가 더 위에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장모님 모시고 백월산 일몰 보러 가자고 했다.

“언제 장모님 모시고 백월산 일몰을 보러 한번 올라갑시다. 산 정상까지 차가 올라가니 100m만 걸어가면 돼. 장모님도 더 거동을 하시기 힘들어지기 전에 멋진 일몰 풍경도 한번 보셔야지.”

“덕유산에도 올라가고 금산에도 가야 하고 우리 엄마 바쁘네.”

어쨌든 집에서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 장모님 모시고 와서 일몰도 보고 수력사 산채정식도 먹어보기로 했다. 높은 산을 걸어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여기저기 다 모시고 올라가 보고 싶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쉽게 일몰 풍경을 볼 수 있는 근사한 곳이 있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대설(大雪)-간하는 맛

대설은 얼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갈라진 대지 틈으로 눈이 내려 씨앗을 따뜻하게 감싼다는 절기입니다. 전에는 눈이 많이 오면 오도가도 못하고 고립되어 집 안에서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아늑하게 ‘간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구석구석 길이 잘 닦여 예전처럼 쉽게 간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추운 겨울에 얼음이 뚱뚱 뜬 동치미 국물에 찢고구마를 먹던 생각이 납니다. 살얼음이 어석거리는 식혜를 간식으로 먹으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 겨울밤 아늑하게 간하는 맛의 기억입니다. 눈이 와야 되는 계절이 비가 내리고 있네요. 12월 기온으로는 오늘이 역대 최고 기온이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이삭이의 엄마 아빠는 제가 보기에 다운증후군 자녀 부모 중 최고입니다. 아니 그냥 모든 엄마 아빠 중 최고입니다. 특히 아빠. 아빠의 사랑을 이삭이만큼 받고 자라는 아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는 아빠 껌딱집니다. 이삭이가 도자기에 관심을 가져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이삭의 첫 작품은 아빠를 위한 머그잔입니다. 제가 본 머그잔 중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머그잔입니다. 감동입니다. 이삭이 상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 페이스북

③도서출판 소식

- 신간 <들꽃편지19권-유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1
- 77.들꽃편지18권-사철채송화호 /컬러510쪽 30100원 -2023.11.6
- 76.들꽃편지17권-데이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0.4
- 75.여유일기-2022 (일기14) 컬러396쪽 23800원 -2023.9.15.
- 74.들꽃편지16권-고구마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9.1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0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10월 재정결산

2023년 10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오창근 옥치오 이재이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수환 정호숙 조운학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선한열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장사교회 함안중앙교회
27분이 1,450,000원을 들여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12.7.일까지 7681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78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
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새로 나온 책

제19권 모과꽃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9권 모과꽃호
최용우 편집 510쪽 30,2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얘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는 싱싱한 목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 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 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9권〉은 제616호(2020.5월)부터 제633호(2021.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일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1천년 만에 처음으로 성당, 절, 교회의 종교 모임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온 세상이 울스톱 되는 재난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매일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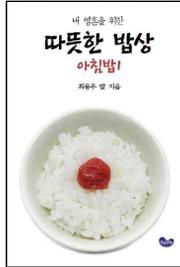
❀ 최용우 저서



⑩ 일상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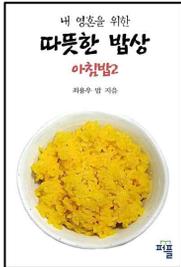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쁨'을 가득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시집은 일상에서 찾은 평범하면서도 시시하면서도 가만히 마음을 열어주고 보듬어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400원 210쪽(컬러)퍼플



① 따뜻한 밥상-아침밥1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맛집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1년 동안 여대상 11장까지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② 따뜻한 밥상-아침밥2

하룻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거르면 몸이 상하듯 말씀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여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

17,300원 398쪽 퍼플



③ 따뜻한 밥상-점심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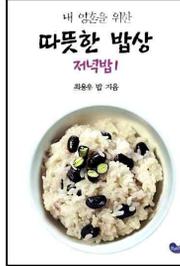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하루 한쪽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단 순히 읽기만 해도 영혼에 양식이 되는 순수 말씀 중심 묵상집입니다. 시편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④ 따뜻한 밥상-점심밥2

묵상은 갈대기와 같이서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해도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 갑니다.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398쪽 퍼플



⑤ 따뜻한 밥상-저녁밥1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신학적 교리적 조미로 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읽은 쉬운 말씀묵상 마태복음-마가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8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